

과 음운론, 형태론과 통사론, 형태론과 의미론이 상호 관련성을 가지면서 통합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통합적 연구 방법을 지향하면 훨씬 더 경제성 있는 이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공시적 연구 방법론에 치우쳤던 지금까지의 언어 연구 방법을 극복하여, 통시적 연구 방법론을 더욱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공시대와 통시대는 그 어느 것이 더 비중이 높을 수 없으며, 이 둘은 상호 의존적이기도 하다. 국어 형태의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헌 자료를 발굴하고, 방언 자료를 정밀하게 정리하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는 국어 형태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공시대의 규명에도 기여할 것이다. 통시적 정보의 부재는 자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초래할 수 있고, 그것은 다시 잘못된 해석을 낳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공시적 연구와 통시적 연구를 통합할 수 있는 범시적 연구 방법론을 확립하는 일도 중요할 것이다.

3. 국어 통사론 연구

—통사론 연구의 반성을 위한 제언—

3.1. 목적

제3장은 주로 광복 이후 우리의 통사론 연구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하여 반성할 점이 있다면 그것은 특히 어떤 점이 문제되는가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앞으로의 연구가 지향해야 할 점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관심은 종래의 연구가 특히 어떠한 점을 소홀히 했으며, 특히 종래의 연구에서 잘못된 점은 무엇인가를 반성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다. 문제의 연원이 과거로 소급하는 경우에는 시대적인 경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그 이전의 업적도 언급하기로 한다.

우리 논의의 입각점을 상징적으로 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다음과 같은 일화를 먼저 소개하기로 한다. 국어에 대한 문법적 성찰의 눈뜸의 순간을 우리는 놀랍게도 주시경(1906:24-25)에서 볼 수 있다.

(1) 주시경(1906:24-25), ‘대한 국어 문법’의 일절

내가 십오세에 국문을 처음으로 공부할 새 “조희와 붓과 벼루와 칩은 선비의 쓰는 물건이라” ᄇ는 말을 쓰고 본즉, ‘붓, 떡’ 두 즈 밑에는 ‘과’즈요 ‘조희 벼루’ 두 즈 밑에는 ‘와’즈라 그 새 곳 생각나기를 ‘과’나 ‘와’는 다 토라. 이 두

즈는 다 眞書의 及즈의 뜻과 같이 ‘조희, 붓, 먹, 벼루, 칩’ 사이를 련홀 짜름이 어늘 [...] 다시 살펴본즉 ‘붓, 먹’ 즈는 받침이 있고 ‘조희, 벼루’ 즈는 받침이 업는지라. 이에 받침 있는 즈 밑에는 ‘과’ 즈가 쓰이고 받침 업는 자 밑에는 ‘와’ 즈가 쓰임인가 하고, 이를 밀우어 달은 말들을 시험하여 본즉 과연 그러 하고 [...] (띄어쓰기, 문장 부호 필자)

1890년 무렵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1)의 사건은, 다소 과장을 하면, 우리 민족 역사상 처음 있는 문법적 성찰의 순간이라 할 수 있다. 이 순간이 기록되어 전하는 것 만도 천만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순간이 특히 감동을 주는 것은 문법적 성찰이 다른 문법의 영향을 전혀 입지 않은 상태에서 자생적으로 싹트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수준은 지극히 낮고 극히 초보적인 사실의 확인에 지나지 않는다. (1)을 최근의 촘스키 문법이나 그 영향 아래 쓰여진 거창한 논의들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이를 데 없다. 혹 이런 것에 대해서도 문법적 성찰이란 말을 쓸 수 있는가 의아하게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15세 학동의 인식에 지나지 않는 (1)은 아직 살아 있다. 이것은 언어학의 혁명에 해당하는 업적이라 일컬어지는 촘스키(1957) 중에서 지금 살아 있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과 크게 대조된다.¹⁾ 촘스키(1957)의 영향 아래 이루어진 초창기의 국어 문법적 논의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것을 찾기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다른 한편, 주시경이 독자적으로 만들어 낸 문법 술어들은 지금 거의 다 죽은 상태이다.²⁾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적인 명제를 얻을 수 있다. 하나는 문법적 성찰이 오래 살아 남기 위해서는 토착적인 언어 사실에 튼튼히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계 언어학과 발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보편성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기로 한다.

(2) 교훈적 명제

가. 문법적 성찰이 비교적 오랫동안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어 사실에 튼튼하게 기초해야 한다.

-
- 1) 구절 구조(혹은 이후의 ‘구구조’) 규칙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과 같은 것이 그 하나이다. 최근의 생성문법의 동향에 대해서는 양동휘(1994나, 1996) 및 박승혁(1997), 윤만근(1997) 등이 참고된다.
 - 2) ‘기난갈[품사론], 짬들갈[구문론]’ 등과 같은 술어를 비롯하여, ‘다[집합어], 모[구(句)] 드[문(文)], 미[문장(文章)]’ 등과 같은 많은 술어들을 말한다. 김민수(1977/1986) 참조.

나. 문법적 논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계 언어학과 발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 즉, 보편성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가)를 자료적 요구 조건 혹은 대상적 요구 조건이라고 한다면, (2나)는 도구적 요구 조건이라 할 수 있고, 또 달리 (2가)를 내용적 요구 조건이라 한다면, (2나)는 형식적 요구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대상이 없이 도구는 가치를 가질 수 없고, 도구가 없이 대상은 자기 고유의 효용성을 드러낼 수 없다. 내용과 형식의 긴장과 대립 혹은 조화는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용적 요구 조건과 형식적 요구 조건이 언제나 균형 있게 고려되는 것은 아니다. 그 동안의 언어학 혹은 국어학 연구는 이 두 갈림길에서 어느 한 쪽으로 쪼그라들었다고 할 수 있다. 서구 언어학의 영향을 과도하게 받아,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그것이 우리 언어학의 체질처럼 변질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무엇이 저들의 영향이고 무엇이 저들의 영향이 아닌지를 판갈음하는 것조차 어려워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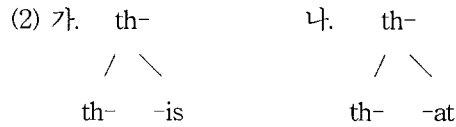
그 동안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국어학의 일정한 계기가 있을 때마다, 또 개인이나 단체나 기관이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계기가 있을 때마다 국어 문법적인 논의의 성과가 소개되고 검증되어 왔다.³⁾ 그러나 우리의 체질처럼 되어 버린 서구 언어학의 영향이 우리에게 어떠한 결함으로 작용하고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를 돌아보는 일은 드물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의는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필자의 관심과 능력의 범위 안에서 이제까지 전개되어 온 통사적 논의의 결함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논의 전부를 다룰 수는 없다. 우리의 목적이 기왕의 논의들을 소진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양보를 두어, 본 논의가 혹 범하였을지도 모르는 잘못이나 미처 보지 못한 논의에 대하여 독자에게 양해를 얻고자 한다.

3) 고영근 외 4인(1979), 서태룡(1981), 고영근(1985, 1987), 성백인(1986), 김영희(1989), 이현희(1989), 홍종선(1989) 등은 90년대 이전 시기의 반성적 성찰이라 할 수 있는 것이며, 강명운(1990), 이정민(1990),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편(1990), 서정수(1991), 서정목(1992), 임홍빈(1992), 김민수 편(1993), 권재일(1994), 김기혁(1995), 정승철(1995), 김승곤 편(1996), 김정대(1996), 문양수(1996) 등은 90년대에 들어 이루어진 반성적 성찰이다. 90년대에 들어 부쩍 이러한 관심이 늘고 있다. 해방 50년과 같은 시간적인 계기가 이러한 성찰의 계기가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사에 대한 연구사가 필요할 정도로 많은 연구사가 쓰여졌다. 김승곤 편(1996)은 그러한 성격을 띤다.

3.2. 어휘 항목의 온전성 문제

3.2.1. 어순 공리와 어휘 파괴

양동휘(1994나:352)에는 다음과 같은 그림이 소개되고 있다.



(2가)는 영어의 결정사(determiner)라고 하는 this를 th-와 -is로 나눈 것이며, (2나)는 that를 th-와 -at로 나눈 것이다. 어떤 요소가 다른 요소에 선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소를 비대칭적으로 성분-지휘(c-command)해야 한다는 케인[Kayne](1993)의 어순 공리,⁴⁾ 즉 ‘선적 대응 공리(Linear Correspondence Axiom)’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this를 th-와 -is로 자른 것이며, that를 th-와 -at로 자른 것이다. 그래야 영어에서 동사 뒤에 this나 that가 목적어로 쓰일 수 있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양동휘(1994나:352)의 소개는 (3가)와 같다. 이 부분에 대한 촘스키(1994:29)의 설명을 (3나)에 가져 오기로 한다.

(3) 가. 촘스키[Chomsky] (1994)는, this, that과 같은 한정사는 th-라는 핵 D가 -is나 -at라는 보충어를 택하여 (304)[위의 (2)]와 같은 DP 구조를 형성한다고 본다. (양동휘(1994:352))

나. 영어의 this, that과 같은 결정사는 추측컨대 강한 자질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서 첫 자음은 (‘the’와 ‘there’에서와 같이) D를 나타내고 나머지는 일종의 형용사를 나타낸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⁵⁾ (촘스키(1994:29) 참조)

촘스키(1994)에서 필자의 눈에 띈 것은 (3나) 정도이다. this, that가 결정사라는 것, 그 첫 자음이 “결정사(D)”라는 것, 그 나머지 -is와 -at가 아마도 형용사일 것이라는 것이다. -is와 -at의 품사에 대한 언급은 (3가)에는 없다. (3나)에 전체되고 있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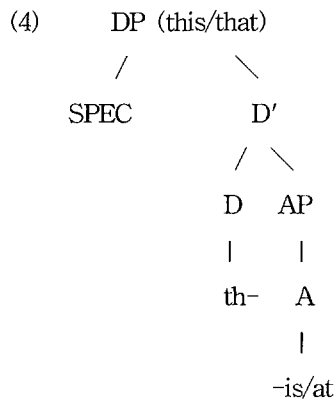
4) 양동휘(1994)에서는 이를 ‘어순 공리’로 번역하고 있다.

5) this나 that는 ‘I picked it up.’과 같이 국소적으로 접어화하지 않는다.

결정사가 형용사구를 보어로 취한다는 것이다. (3나)에서 채택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애브니[Abney] (1987)적인 가설이다. 결정사는 형용사구를 보어로 취하고, 다시 형용사는 명사구를 보어로 취한다.

(3)에는 애브니[Abney](1987)적인 결정사구 가설이 가지는 문제 외에도,⁶⁾ 그 적용에 있어 (3) 자체가 가지는 문제가 있다. (2)는 결정사(D)가 그 보어로 형용사구(AP)만을 가지고 결정사구(DP)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상정된 것이다. 그러나 영문법에서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특수한 경우⁷⁾ 외에는 결정사가 형용사나 형용사구와 함께 독립적인 범주를 이루는 일은 없는 것이다. 반드시 명사를 가져야 한다. 이는 촘스키(1994)나 애브니(1987)적인 의미의 결정사구(DP)라는 것이 성립할 수 없는 것임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핵이 그 자체로서 구범주가 될 수 없는 것은 기능 범주에 국한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보어를 가지고도 독립적인 범주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적어도 결정사구라는 것이 다른 범주와는 다른 것임을 말해 준다. 그것은 어휘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왜곡시키는 것이 아닐 수 없다.

(2)에는 범주 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와 관련된 몇 가지 결함이 은폐되고 있다. (2)에 엑스-바 도식에 따라 층위와 범주를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4)는 어휘 항목의 문제를 논외로 하면, 결정사(D)가 형용사구(AP)를 취하여 D'가 되고, 그것이 지정어(SPEC)와 함께 DP를 이루는 구조를 보인 것이다. (4)는 (2)에 표시된 요소들을 어휘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범주에 위치시켜 본 것이다. 결

6) 애브니(1987)적인 결정사구 가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임흥빈(1995)를 참조하기 바란다.

7) 여기서 특수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the rich, the brave'와 같은 구성을 말한다. 그 외의 경우는 결정사가 앞에 오고 형용사가 그 다음에 올 때에는 반드시 명사가 와야 한다.

정사가 형용사(구)와만 결합한 구조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 (2)에는 (4)와 같은 층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범주도 표시되어 있지 않다. 최근의 문법은 이러한 구조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⁸⁾ 결과적으로 (3가, 나)에는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에 대한 혼동이 있고,⁹⁾ 일반적인 구성에 대한 원리조차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 “일반적인 원리”란 아주 초보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어와 같으면 관형사는 뒤에 명사가 와야 한다는 것과 같은 정도의 일반화를 의미한다. 실제로 (4)의 D 자리에 “a, an, the, my, this, that” 등과 같은 단어를 놓아 보고, 다시 A의 자리에 “good, bad, big, small, careful, wrong” 등과 같은 영어의 단어를 놓아 보라. 그것이 일반적인 구조가 아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에브니(1987)적인 가정에 의하면 형용사는 명사구를 보어로 취한다. (4)에 이를 반영하면 명사구는 아마도 공범주로 상정된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더 계속되기 전에 중지해야 한다. 문제의 접근이 처음서부터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다. (4)에서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4)에서 A 교점에 걸려 있는 -at/is가 그 보어로서 명사구를 요구한다는 것은 타당한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형용사가 명사구를 그 보어로서 요구한다는 것도 전혀 근거 없는 가정이거나, -at/is가 보어를 요구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논의이다. -at/is는 형용사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음성적 자료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어디에서도 그것이 독립적인 어휘 항목이라든가, 그것도 형용사라든가 하는 것과 같은 증거를 얻을 수 없다. 그러한 항목을 등재한 사전도 있을 수 없고, 다소 과장을 하면 앞으로 어떠한 사전이 편찬되더라도 그러한 항목은 표제어의 자격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한 어휘 항목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절대로 문법적인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4)에서 우리는 (2)의 두 가지 그림을 하나의 나무그림으로 나타내 보였다. (2)에서는 왜 동일한 구조의 그림을 둘로 그린 것일까? 독자의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다. 촘스키(1994)가 지향하는 것이 “나상(裸狀) 구구조”이기 때문이다. 구범주에 대한 추상화를 거부한다. 그러나 구범주에 대한 추상화는 일반화를 포착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이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문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문법적인 기술은 추상적인 범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

8) 필자가 이해하는 바로는 “나상(裸狀) 구구조(Bare Phrase Structure)”에서 “나상(Bare)”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9) 이는 D 범주의 어휘 항목과 그 위의 범주가 동일한 것을 말한다. 곧 다시 다루기로 한다.

다. 자명한 사실이지만, 구성에 대한 범주를 고려하지 않으면, 일반성은 포착될 수 없는 것이다. (4)에서 두 개의 그림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¹⁰⁾

(3가, 나)에는, 사소한 것으로 보이는, 그러나 결코 사소한 것일 수 없는 범주의 혼동이 있다. (3가)의 문맥을 자세히 보면, this, that는 분명히 “한정사[결정사]”로 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핵 D의 투사(projection)이다. 핵 D는 다름 아닌 “한정사[결정사]”이다. 자기의 투사가 다시 자신이 된다. (2)에서 그것은 좀더 추상적으로 th-의 투사가 다시 th-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가장 소박한 의미에서 그것은 어휘 항목과 그것이 이루는 구성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어휘 항목과 그것이 이루는 구성이 어떻게 동일한 것일 수 있는가? 양동휘(1996:129-130)에서는 “‘통사론’의 실종?”이란 제목에 의문 부호를 달고, “최소 이론에서 통사론은 실종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고 있는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으나, 구성과 층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론은 이미 구성에 대한 이론은 아닌 것이다.

왜 이 부분에서 최소 이론이 가장 심각한 결함을 드러내는가? 어휘 항목을 무단히 파괴했기 때문이다. 어휘 항목은 통사론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다. 따라서 필연적인 경우가 아니면, 아니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일은 금해야 한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기로 한다.

(5) 어휘 항목의 파괴 금지 조건

통사적인 논의나 기술에서 어휘 항목을 물리적으로 혹은 무단히 파괴하는 일은 금지된다.

3.2.2. 사동의 의미론과 어휘 해체

어휘 항목을 의미 원소(semantic primitive)로 분해하는 ‘어휘 해체(lexical decomposition)’ 분석과 같은 것은, 우리가 (2)에서 본 바와 같은 물리적인 파괴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그것이 어휘 해체를 통하여 통사적인 기술의 기초적인 단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면, 어휘 항목에 대한 물리적인 파괴와 그 성격이 그렇게 다른 것은 아니다. 의미 원소적인 분해가 의미론적인 해석에는 혹 유용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을 통사론의 직접적인 재료로 할 수는 없는 일이다.

10) 촘스키(1994)에서 원리적으로 내세운 것은 구성에 대한 범주 표시가 없는 것이지만, 실제적인 기술에는 범주가 표시된다.

어휘 해체는 분명 어떤 어휘 항목이 가지는 고유한 문법적 특성을 파괴시킨다. 혹은 그것이 가지지 않은 다른 문법적 특성을 부가하게 된다. 어느 것이나 동질성에 문제를 야기한다. 무엇보다도 이 점이 명백히 인식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편의에 따라 어휘 항목을 근거 없는 의미 원소로 분해하는 작업이 자행될 염려가 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어휘 해체 전의 어휘 항목이 가지는 통사·의미적 특성과 해체 후의 구성이 가지는 통사·의미적 특성이 아주 미세한 정도의 차이를 가지는 경우, 자칫 어휘 해체 분석을 혹 유용한 것은 아닐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휘 항목의 고유한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바로 문법이나 통사론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은 영어식의 표현법으로 아무리 강조를 하여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이 점에서 시바타니(1973)에 대한 양인석(1974)에서의 방어는 기념비적인 노력으로 기억될 만한 것이지만, 어휘 해체가 가지는 통사·의미적 특성의 차이는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 (6) 가. *화가가 만화의 주인공을 웃겼다.
 나. 화가가 만화의 주인공을 웃게 하였다.
 (7) 가. 영희가 머리를 길렀다.
 나. 영희가 머리를/머리가 자라게 했다.
 (8) 가. 요즘은 도무지 아이들을 길러 먹기 어렵다.
 나. *요즘은 도무지 아이들을/아이들이 자라게 해 먹기 어렵다.
 (9) 가. 아저씨가 아버님께서 웃으시게는 하였다.
 나. 아저씨가 아버님께서/아버님을 웃으시게도 하셨다.

(6가)는 이른바 단형 사동이고, (6나)는 장형 사동이다. (6가)의 부적격성은 (6가, 나)가 동의일 수 없음을 말해 준다(임흥빈(1976) 참조).¹¹⁾ (7가, 나)의 동사는 이정민(1973/1974)에서 사동적으로 관련된 동사의 예로 든 것이다. 어휘 해체가 반드시 '죽다-죽이다'와 같이 음운론적인 형식이 유사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보이기 위하여 예로 든 것이다. 그럴 경우 사동법 문제는 이미 형태의 차원을 넘어선다. '자라다-기르다'의 관계는, 권재일(1992:157)에서는 어휘적 사동법이 될 것이지만, '가다-보내다'와 같이, 어

11) 이정민(1974:139~140)에서는 두 사동이 인지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나, 함의(entailment)에서는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저에 성분 문장을 가정하는 것은 어휘 해체 분석을 일단 받아들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휘 항목 사이에 맺어지는 의미론적 관계의 하나로 보는 것이 온당하다. 장형에서는 (6)-(9)의 (나)에 보인 바와 같이 피사동주 관련 성분이 ‘을/를’ 조사나 ‘이/가’(혹은 ‘께서’) 조사를 가지고 나타날 수도 있으나 단형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밖에도 장형에는 두 개의 동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보조사가 쓰일 수도 있고, 주체 높임 형태가 두 번 쓰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단형에서는 원리적으로 이 같은 일이 허용되지 않는다. 통사적인 관련의 필연성이 적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기로 한다.

(10) 어휘 해체 분석의 성격

어휘 항목을 의미 원소로 분해하는 것은 어휘 항목이 가지는 고유한 문법적 특성을 파괴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어휘 해체가 (10)과 같은 성격을 가지므로, 그것은 적어도 통사적으로는 (5)의 조건에 의하여 금지된다.

3.2.3. 피사동 문제와 어휘 파괴

국어에서 피동과 사동을 하나의 원리로 설명해 내고자 하는 것은 20세기 한국 어학에 나타난 가장 야심에 찬 기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박양규(1978)에서 생성 의미론적인 시도를 볼 수 있고,¹²⁾ 다시 강명윤(1997)에서 최소 이론적인 해석의 하나를 볼 수 있다. 박양규(1978)에서는 피동과 사동의 접사를 다같이 ‘-이’로 가정하고 그 기능을 사동이나 피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본다. 그 논지를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11) 가. 사동이나 피동의 개념이란 각각 새로운 주어의 도입으로 인한 동사 의미 자질의 비재귀화와 재귀화에 대한 실용적인 의미 해석일 뿐, 그 자체가 ‘-이-’의 기능은 아니라고 보게 되는 것이다. (65쪽, 밑줄 필자)

나.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 경우의 ‘-이-’를 별개의 형태로 다룰 필요가 없을 것 같다. (65쪽)

다. 사동의 ‘-이-’와 피동의 ‘-이-’는 새로운 주어를 도입한다는 점에서는 상

12) 박양규(1978)에서 “생성 의미론”이란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박양규(1978)에서 통사론이라는 것은 엄격히 “어사간의 관계에 의하여 기술되는 것(69쪽)”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그 논의의 성격은 기저 구조를 의미 구조로 생각하는 생성 의미론적인 전체에 많이 기울어져 있다.

사를, 그리고 새로운 주어의 선택에 있어서는 상위를 현시한다. [...] 그 리하여 사동 어간은 비재귀성을, 그리고 피동 어간은 재귀성을 각각 지 니게 되는 것이다. (65쪽, 밑줄 필자)

(12) 가. 영이가 순이를 업었다.

나. 철수가 영이에게 순이를 업히었다.

다. 순이가 영이에게 (순이를→∅) 업히었다.

피동이나 사동은 (11가)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새로운 주어를 도입하는 것으로 특 징지어진다. 이것은 (12나)와 같은 사동문의 경우 (12가)의 ‘본동사문’에는 없는 비재귀 적인 주어 ‘철수가’가 도입된 것을 말하고, (12다)에서는 재귀적인 주어 ‘순이가’가 도입 된 것을 말한다. 이를 토대로 (11나)와 같은 결론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피동과 사동의 통사론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11다) 에서도 명백히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새로운 주어의 선택”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드러낸다. 비재귀적인 주어를 도입하는 것과 재귀적인 주어를 도입한다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는가? (12나, 다)에서 보더라도, (12나)에는 ‘순이를’과 같은 목적어가 있으나, (12다)에서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12다)에는 ‘순이를’이 있지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야만 어느 정도 유사한 것이 된다. 그러나 보통의 피동문에 원리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목적어가 있다는 논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박양규(1978)에서 피동사와 사동사의 문체가 형태론적으로만 다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통사론적인 문체의 하나로 다루어진 것인가 하는 점이다. (11다)의 밑줄 친 부분에는 “사동 어간”이나 “피동 어간”과 같은 말이 눈에 뜨인다. 이는 사동사와 피동사의 형성이 형태론적 차원의 문제에 머물러 있음을 암 시한다. 그러나 (11)에서 형태소 ‘-이’를 도입하는 방식이 “-이-”와 같이 되어 있다. 이 는 전통적으로 파생 접사를 표시하는 방법이 아니다. 이른바 “선어말 어미”와 같은 “굴 절” 형태를 표시하는 형식에 가깝다.

이와 관련되는 다른 언급은 다음과 같다.

(13) 가. 우리는 이 형태를 그 자체의 주어를 가지는 어떤 동사의 표면형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박양규(1978:68))

나. 이희승(1956)에서 제기된 바 ‘있->-이-’의 어원론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13가)는 피동 사동의 접사 ‘-이’를 기저에서는 통사적 존재인 어떤 서술어(그 서술어는 (13나)에 암시되어 있다)의 표면형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는 기저에서 피동사와 사동사가 저대로의 어휘적 온전성을 상실하게 됨을 의미한다. 아주 조심스러운 논의를 통한 것이 분명하지만, 결국 피동사와 사동사는 파괴된 것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기로 하자.

(14) 피사동 접사의 동일성 가설과 어휘 파괴

피사동 접사의 기능적 동일성을 가정하는 논의는 피동사와 사동사의 어휘적 온전성을 파괴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박양규(1978)적인 논의는 김한곤(1982)에서 좀더 본격화된다. 피사동의 표현 형태 ‘-이’는 이제 완전히 하나의 서술어로 취급된다. ‘-이’는 ‘CAUSE(=be the cause of)’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상정된다. ‘-이’를 상위문의 서술어로 하는, 내포문을 가진 동일한 기저 구조에서 표면의 두 가지, 사동문과 피동문을 분화시키는 것은 변형 절차이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적지 않은 논의에서 우리는 때로 피동과 사동의 접사를 굴절 접사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 어떤 것으로 상정하는 태도를 보게 된다. 안상철(1985:22)에서도 ‘-이, -히’ 등의 접사는 ‘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어 굴절의 패러다임에 대한 이동재(1992)의 논의에서도 굴절은 V-I-USI-ESS-ESS-KEYSS-TE와 같이 도식화되고 있다. 이들이 ‘-이’ 자체를 굴절에 포함시킨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피동과 사동의 ‘-이’를 동사와 같이 취급하는 방식은 다시 휘트먼[Whitman]·한[Hahn](1988)에서도 되풀이된다. 이러한 논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시정곤(1995)에서도 피동의 ‘-이’는 통사적인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

피동과 사동이 통사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다시 강명윤(1997)에서 계속된다. 피사동의 ‘-이’는 이번에는 촘스키(1995)에 상정된 바와 같은 vP-구조에 나타나는 경동사 v에 부착된 형태로 상정된다. ‘-이’가 완전한 동사로 취급된 것은 아니라고 할지 모른다. 피사동 접사 ‘-이’를 독립된 서술어처럼 취급하지 않은 것이 조심스러운 것이지만, 국어에 v 경동사와 같은 전혀 아무런 음성 형식도 갖추지 못한 추상 동사를 설정하는 것이나, 국어에 동사 인상과 같은 추상적인 이동을 설정한다는 것은 이미 구체적인 언어 현실을 떠난 것이다.

사동사와 피동사가 그 고유의 어휘적 특수성을 가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은 이기동(1975, 1976가, 1976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바 있고, 근래에는 박연미[Park](1991)에

서도 이 같은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 피동과 사동의 접사가 최현배(1937)에서 특수하게 ‘보조 어간’의 하나로 다루어진 외에는, 우리 문법의 전통도 피동사와 사동사를 파생어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³⁾ 이러한 인식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다.

- (15) 가. 사동사와 피동사는 그 기능 의미적 특성을 달리한다.
- 나. 사동문과 피동문은 문장 구성의 요소와 형식을 달리한다.
- 다. 피동 접사와 사동 접사의 목록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피동과 사동을 하나로 설명하려는 기도는 야심에 찬 기도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지만, 그 노력은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차이가 (15)에 보인 바와 같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다. 이보다 더 경계해야 할 것은 이러한 시도가 어휘의 파괴를 수단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휘는 의심할 여지없이 고유한 기능 의미적 단위이다.

3.2.4. 부정법 논의와 어휘 파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국어에는 두 가지 유형의 부정문이 있다. 하나는 서술어 앞에 단순히 부정소를 놓는 단형 부정문이고, 다른 하나는 ‘-지 아니하다/못하다/말다’를 이용하는 장형 부정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행해지는 어휘 파괴는 그 동안 잘 주목되지 않던 것이다. 그러나 ‘아니하다, 못하다’의 ‘-하다’가 부당하게 독립적인 어휘 항목처럼 취급되는 것은 분명 어휘 파괴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어에 생성 문법이 도입되어 부정법 논의가 시작된 박순함(1967) 이래 ‘하다’ 문제는 올바른 취급을 받아 본 일이 오히려 드문 일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 (16) 가. 아기가 잠을 자 {아니, 못} 는다 (기저 규칙(Base Rule)에 의하여 Neg가 선택될 때, 박순함[Park Kim](1967:62) 참조)
- 나. 아기가 잠을 자지 {아니, 못} 는다 (서술어 어간의 명사화, 박순함(1967:62) 참조)

13) 주시경(1910:102~104)에는 ‘줄이-, 돌우-, 묵히-’와 같은 사동을 “제음이 남음되게 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쓰이-, 걸이-, 접히, 감기- 먹히-’ 등과 같은 것을 “남음[타동]이 제음[자동]이 되게 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 아기가 잠을 자지 {아니, 못} 한다 ('하-'보충, 필수적, 박순함(1967:61) 참조)

(16)은 박순함(1967)에 제시된 장형 부정문의 기저 구조이다. 서술어는 어미도 없이 상정되고, 부정소(Neg)도 '아니, 못'과 같은 형식으로만 도입된다. 서술어 어간이 명사 화함으로써 (16나)와 같은 형식이 되고, 다시 '하-'보충이 행해져 (16다)와 같은 형식이 된다. 주목되는 것은 (16다)에서 '하-'가 독자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아니하다'를 하나의 온전한 어휘 항목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17) 가. VP → (Neg) Vs + Afv (송석중(1967:63) 참조, Vs는 동사 어간, Afv는 동사 어미를 뜻한다)

나. ki {SM, OM} ⇒ ci {SM, OM} / ___Neg (송석중(1967:63) 참조) (SM, OM은 주어 표지와 목적어 표지를 말한다)

다. 이 규칙[우리의 (17가)]은 동사구 속에 있는 동사 어간을 명사화하여, 그것을 새로운 동사 '하-'의 주어나 목적어가 되게 한 규칙 뒤에 놓여야 한다. (송석중(1967:63) 참조)

라. 비가 오기를 아니 한다. (송석중(1967:62) 참조)

마. 비가 오지를 아니 한다. (송석중(1967:62) 참조)

(17가)는 구절 구조 규칙의 하나이다. 동사구를 확장하는 규칙만을 보인 것이다. 부정소(Neg)가 괄호 속에 든 것은 그것이 수의적인 요소임을 의미한다. (17나)는 부정소 앞에서 명사화소 '-기'가 '-지'로 되는 규칙이다. (17다)는 송석중(1967)의 기본 입장과는 다른 진술이다. 송석중(1967)은 장형 부정문의 심층 구조를 (17라)와 같이 본다. 따라서 "새로운 동사 '하-'와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¹⁴⁾ 동사 '하-'는 본래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17가)에서 보면 동사 '하-'는 부정소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다. 'Neg + 하-'가 하나의 어휘적 단위라면, (17가)에서와 같이 부정소는 괄호 속에 있는데, '하-'가 그 밖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위에서 부정소 '아니'와 '하-'는 동일한 어휘 항목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 모든 문장에 '하-'를 상정한 것이 이홍배(1970:178)이다. '하-'는 '아니'

14) (17다)의 명사화를 변형 규칙이라 할 때, (17가)와 같은 구절 구조 규칙이 그러한 변형 규칙 뒤에 놓인다는 것은 당시의 문법 모형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없이도 모든 단일문에 상정된다. ‘아니’와 ‘하다’가 연결되는 것은 부정소-이송(Neg-Transportation)의 결과 Neg가 ‘하-’ 가까이 감으로써이다. 이에 대하여 오준규 [Oh](1971:175)에서는 부정소-융합 접근을 제안한다. 부정소는 문 구조 밖에 있다가 동사와 융합하게 되고, ‘하-’가 첨가된다. 여전히 ‘하다’는 기저에서 독립적으로 행동한다.

초창기적인 논의에서는 어휘의 고유 가치라는 것이 그렇게 중시되지 않았던 사정을 이해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촘스키(1957)이 어휘부 없이 출발한 것은 당시의 어휘부에 대한 인식을 상징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문소 논의와 관련하여 보문자 선택의 중요성이 알려진 이후에도 어휘 항목의 고유한 가치를 소홀히하는 논의가 계속되는 양상을 보인다. 폴록[Pollock](1989)과 촘스키(1988)에서 비롯하는 Neg를 핵으로 하는 NegP가 국어에도 상정됨으로써 ‘하-’는 다시 부정소(Neg)와 분리된다. 한학성(1987), 윤종렬(1990), 윤정미(1990), 안희돈(1991), 박갑용(1992) 등에서 “‘하-’는 좌초된 시제를 부축하기 위한 허동사(한학성(1993:450) 참조)”이다. 한학성(1987), 박갑용(1992)에서 선행 동사의 어미 ‘-지’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하다’가 아니라 오히려 ‘하-’이다. 이 점은 최현숙(1994)에서도 같다. 한학성(1993)에서는 ‘하-’의 자리가 정확하게 상정되어 있지도 않다. 한학성(1993:454)의 그림에서 ‘하-’는 시제 교점아래에 온다. 한학성(1987, 1993)에서의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18) 가. 기저에서 Neg는 ‘하-’와 독립된 별개의 어휘 항목이다.

나. ‘하-’는 시제 요소를 부축하기 위한 허동사이다.

다. 선행 동사의 어미(한학성(1993)에서 이는 작용역 표지이다) ‘-지’를 선택하는 것은 ‘하-’이다.

(18나)와 같은 자격을 가지는 ‘하-’가 ‘-지’를 선택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 시제 요소를 부축하기 위한다는 것은 흔히 나중에 도입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이 작용역 표지 ‘-지’를 선택한다는 것은 개연성이 낮다. ‘-지 아니하다’를 고려할 때 ‘-지’와 ‘하-’의 거리도 문제된다. 윤정미(1990)에서 ‘-지’는 명사화소 [+N]로 상정된다. 그것을 보어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와 같은 Neg이다. 그러나 ‘아니’가 왜 명사절을 보어로 요구하는가? 어휘의 가치를 소홀히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이 간과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아니하다, 못하다’가 ‘-지’를 선택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국어에 나타나는 가장 소박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현대의 모든 이론적인 정교함이나 교묘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가장 먼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다. 이론적인 정교함이 어휘 요소의 파괴에서 얻어지거나 출발하는 것일 때 그 정교함은 공허한 것일 뿐이다.

- (19) 가. 철수가 그림 그리기를 안 했다.
나. *철수가 그림 그리지를 안 했다.

(19가)는 결코 ‘아니’가 ‘-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님을 보인다. ‘-기’ 명사절이 와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 오히려 (19나)와 같이 ‘-지’가 오면 성립에 이상이 생긴다. ‘아니 하다’가 각각 별개의 어휘 항목일 경우이다. 장형 부정문의 ‘아니하다/못하다’는 단지 ‘-지’를 요구한다는 바로 그 특성 하나만으로도 이미 하나의 독립적인 어휘 항목의 가치를 가진다.¹⁵⁾ ‘-지’가 그 앞에 오는 것은 용언어 가지는 어휘적인 선택의 측면이다. 이를 달리 기술하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건 역시 어휘 항목의 고유한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¹⁶⁾ ‘아니하다/못하다’ 사이에는 어떠한 어휘재도 개입될 수 없다. 이 비분리성은 어휘적인 공고성의 발현이다.

박순함(1967)에서 비롯하고 김동식(1980)에서 이어지고 다시 시정곤(1997)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없다, 모르다, 말다’에 대한 ‘안 있다, 못 알다, 안 하다’의 분해도 어휘 파괴의 또 다른 전형을 이루는 예이다. 이들이 유사한 의미로 쓰이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의미론적인 해석상의 유사성일 뿐이다. 몇 가지 예만을 보기로 한다.

- (20) 가. 나는 여기에 안 있다!
나. ?*나는 여기에 없는다!
(21) 가. 요즘 아이들은 돈 귀한 줄 모르고 산다.
나. *요즘 아이들은 돈 귀한 줄 못 알고 산다.
(22) 가. 그를 만나지 말자.
나. *그를 만나지 안 하자.

15) 임흥빈(1987가)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명백히 지적하였다.

16) 서정목(1993/1994:51~2 및 주 4)에서는 “모문 동사로 부사 ‘아니’를 통합시킨 ‘하-’가 오면 그 때도 보문은 ‘-지’에 이끌리는 CP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어휘 항목 ‘아니’에 표시되어야 할지 ‘하-’에 표시되어야 할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근본적으로는 동사 ‘하-’에 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부사 ‘아니’를 통합시킨 ‘하-’가 오면”과 같은 표현은 ‘아니하다’를 하나의 어휘 항목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와 ‘하다’가 따로따로 통사론에 도입된다.

(23) 가. 나는 철수가 그를 만나지 말기를 바란다.

나. 나는 철수가 그를 만나지 않기를/아니 하기를 바란다.

(20가)는 가능해도 (20나)는 성립하지 않는다. 평면적으로 ‘안 있다= 없다’라고 할 수 없다.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 그 때에만 ‘안 있다=없다’가 성립한다고 할지 모른다. 그것은 동질성이 문자 그대로 성립하지 않음을 역설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21가)도 (21나)와 같은 것이 아니다. (21나)는 자연스러운 국어 표현이 아니다. (22가)와 달리 (22나)는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 ‘말다’와 ‘안 하다’가 같을 수 없다. (23)에서는 ‘말기’와 ‘않기’가 같이 쓰일 수 있다. 각기 고유의 표현 가치를 가진다고 볼 때에만 온당하다.

‘아니다’를 기원적으로 ‘아니+이다’의 형성으로는 보는 것은 혹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아니’와 ‘이다’를 각각 하나의 독립적인 통사 단위로 설정하여 국어 문장의 통사론을 기술하는 것은 역시 어휘 파괴의 성격을 가진다. ‘이다’와 ‘아니다’의 어미 연결의 양상이 모두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아니다’ 구성의 제2의 명사구에 ‘이/가’가 쓰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의 어휘 선택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것은 ‘아니’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이다’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다.¹⁷⁾

이제까지 우리는 몇 가지 통사적인 기술에 나타나는 어휘 파괴 현상을 검토하여 보았다. 어휘 파괴는 때로 물리적인 파괴의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의미 분해의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어느 것이나 문법 기술의 온전성을 해친다. 어휘의 온전성을 파괴하는 문법 기술이 온전한 것이 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 밖에도 필요할 때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어휘 해체가 시도된다. 그러나 그 동기는 심각한 반성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 동기가 국어를 마음대로 다루기 위해서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의미는 보편성을 띠는 경향이 있으므로, 어휘 해체를 하면 일반적인 문법 이론이 잘 적용될 수 있다. 이것이 어휘 해체를 하는 기본적인 동기이다. 그러나 그러한 분석에서 국어는 국어가 아닌 것이 된다.

분명 우리는 방법론을 필요로 하는 자이다. 그러나 그것은 국어를 서구어처럼 기술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17) 최근의 부정법 논의에서 이 점을 명백히 지적한 것은 오숙화(1994)이다. 전통 문법에서는 ‘아니다’를 ‘아니’와 ‘이다’로 나누어 본 일이 오히려 드물다.

3.3. 범주 설정의 문제

3.3.1. 생성 문법과 범주 설정

범주의 자의적인 설정은 생성 문법의 한 특징이라고도 할 만하다. 이론에 의하여 범주가 새로 태어나고, 이론에 의하여 범주가 제한되고, 이론에 의하여 범주가 없어진다. 언어학은 이론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하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범주가 사실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렇게 쉽게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선형적으로 주어진 범주라는 것이 있을 리 없다. 범주는 이론적 생성물이다. 그렇다고 어떠한 범주이든 마음대로 만들어 작업을 해도 좋다는 것은 되지 못한다. 범주의 내용은 분명히 사실에 기초하고 있어야 한다. 단순히 이론에 의해서만 생겨난 범주라면 가상 범주일 뿐이다. 언어학은 가상 범주를 가지고 작업하는 학문이 아니다.

츨스키 문법에서 어휘 범주를 명사, 동사, 형용사, 전치사로만 한정하는 것과 같은 편의주의를 취하여 온 것은 아주 연원이 오래된 것이다(츨스키(1981:48)과 같은 것이 한 가지 예이다), 범주와 층위를 명시하지 않는 최근 츨스키(1994)적인 이론의 변모도 전혀 환영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그것은 무모한 시도라고 해야 한다. 문법 기술이란 범주와 층위에 의한 문법적 현상의 일반화이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이들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어휘 파괴도 어떤 측면 범주 설정과 관련되나, 위에서 다룬 문제는 여기서 제외한다.

3.3.2. 결정사구(DP) 가설의 문제

생성 문법에 결정사구(DP) 가설을 처음으로 제기한 것은 브레임[Brame](1981, 1982)이라 한다.¹⁸⁾ 이러한 가설은 페제츠키[Pesetsky](1982), 헬란[Hellan](1986), 에브니[Abney](1986, 1987), 후쿠이[Fukui](1986) 및 후쿠이·스피스[Fukui and Speas](1986) 등에서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시도되거나 채택되거나 옹호되고 있다. DP 가설은 이미 츨스키(1994, 1995)에 도입되어 문법 기술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¹⁹⁾

18) 에브니(1987:78) 참조. 명사구의 핵을 명사가 아닌 결정사로 보는 것은 Montague 문법에 서는 이미 잘 확립된 사항이라고 한다.

19) 이에 대해서는 임홍빈(1995)를 참조하기 바란다. 그에서 가장 중시한 것은 DP 가설은 NP가 격을 가질 수 없게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적어도 격 현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한, 종래의 NP 범주를 DP 범주와 같이 상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DP 가설은 이제 버릴 수 없는 것처럼 되었다. DP 범주는 양동휘(1993, 1994, 1995)에도 등장하고, 또 윤만근(1996, 1997)에도 나타난다.²⁰⁾ 그러나 DP 가설은 절대로 끝까지 검증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적어도 의심스러운 것이며, 필자가 보기에 그것은 잘못된 범주이다. 무엇보다도 DP 가설은 서구어에서조차 등위 구조에서 주어-동사 일치 사실을 설명할 수 없고, 격 배당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²¹⁾ 먼저 일치 문제를 보기로 한다.

- (24) 가. [[Das Kind] und [das Mädchen]] sind schön.(그 아이와 그 처녀가 예쁘다)
 나. [[Der Poet] und [Novellen-dichter] ist Mein Onkel.(그 시인이자 소설가는 나의 아저씨이다)
 다. [[Der Poet] und [Tänzerin]] ist Meine Tante.(그 시인이자 무용가는 나의 아주머니이다)

(24가)의 동사 sind는 수의 일치를 보여 주는 것으로 그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낸다.²²⁾ 이 복수 정보는 [[Das Kind] und [das Mädchen]]이 실제의 두 대상을 지시한다는 사실에서 온다(헬비크[Helbig]·부샤[Buscha](1987:355) 참조). 다른 이론이 있을 수 없다. (24가)에 대하여 결정사를 핵으로 하는 결정사구를 상정한다면, 그 주어에 복수의 자질을 가지는 추상적인 DP를 상정해야 한다. 그것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 (25) *[e (중성, 복수, 1격) [[Das Kind] und [das Mädchen]]]²³⁾

등위 접속된 DP 구조의 핵에는 어떠한 복수의 자질이 가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독

20) 안희돈(1988), 윤종렬(1990), 박정섭(1992), 손영숙 외(1996)에서는 격조사나 보조사를 D(혹은 Del)로 상정하고 주로 격조사구를 DP라 하고 있으나, 그것은 에브니(1986, 1987)적인 의미의 DP는 아니다. 윤종렬(1990)에서는 본격적으로 에브니(1987)적인 기능 범주로서의 DP 분석이 도입되고 있으나, 격조사를 D로 보는 한, 그것은 DP 분석이 아니다. 단지, 격조사구나 보조사구를 기능 범주로 보고 있을 뿐이다.

21)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임홍빈(1995)을 참조하기 바란다.

22) 경어 표현과 관련되는 다른 측면은 지금의 고려에서 제외된다.

23) 이 구조는 DP의 핵 부분만을 강조한 것이다. DP가 다른 DP를 가지고 상위의 DP를 이룰 때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또 그 핵은 어떻게 표시되는지에 대하여 알려진 것은 없다.